

경제

“파업 장기화로 시장 신뢰 잃으면 끝” 광주·전남 기업 경기전망 악화일로

광주공장 찾은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뼈까는 워크아웃 극복 노력 물거품 우려 노사 대화 지속 직장폐쇄 안가도록 최선



“지금 이 순간(워크아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자.”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이 30일 노사협상 상황과 생산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공장을 찾았다. 김 사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해 “워크아웃 기업이 2년 연속 파업한 곳은 금호타이어 밖에 없다”며 “파업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쳐야 신뢰를 잃으면 돌아올 수 없다”고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워크아웃 3년째다. 워크아웃 극복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정식화의 핵심은 경영실적 개선이다. 이를 위해 영업에 집중했다. 영업 채널 복원과 제품 라인업 강화,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쏟았다. 또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으로 2010년 영업이익 6.3%, 2011년 7.8%, 올 1분기 7.1%를 달성했다. 2분기엔 더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노조의 광의행위로 손실이 커져서 손익이 악화되고 있다. 안타깝다.

“워크아웃 이후 임금 동결·반납 등

으로 사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해결책은 워크아웃 조기 종료일텐데 내년 상반기 졸업 가능하나?”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워크아웃 졸업 즉시 임금 반납분(기본급 5%·상여급 200%)이 환원된다. 중단된 복리후생도 복구될 것이다. 워크아웃을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는 게 고통을 덜어준다.

글로벌 불황이 현실화되는 등 하반기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만큼 영업역량을 발휘한다면 내년 상반기 워크아웃 졸업은 가능하다고 본다. 재건단은 올 연말까지의 경영자료를 평가한다. 내년 5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단은 경영 실적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도 워크아웃 졸업의 중요적요소로 여기고 있다.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거래선 중단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실례는?”

▲국내 유통망 등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고, 시장의 신

뢰를 잃을 것이다. 금전적 손실보다 부정적 이미지 고착이 더 큰 손실이다. 돈은 벌면 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노조의 파업으로 29일까지 665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사원들의 임금 손실도 개인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른다.

“가능성과 일반적 ‘임금차별’ 논란이 있다. 어떻게 된 건가?”

▲오래된 일반직들이 임금 차별을 받아왔다. 일반직 급여 수준은 기능직보다 2007년 30% 가량 낮았다. 또 워크아웃 이전부터 회사의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연월차수당·성급급 등을 반납해왔다. 당시 기능직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임금 격차로 인해 일반직 사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이로 인해 워크아웃 이후 일반직들의 이직이 200여명에 달하는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이 우려됐다. 재건단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일반직들의 임금 반납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직들은 자발적으로 1년간 반납한 것이다.

노조에 임금 수준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업계의 임금·복지·고용 등을 노사가 함께 조차해 경쟁사 수준의 임금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

“노조가 새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는데, 새 안은 있는가?”

▲이미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 회사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가능 금액이었다. 재건단이 바깥이 있는데 더 내놔야야 얼마를 더 내놓겠는가. 노조는 왜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가. 협상은 함께 하는 것이다.

“직장폐쇄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말 직장폐쇄를 검토하고 있는가?”

▲파업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회사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직장폐쇄는 마지막 수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7월 업황지수·8월 BSI 지수 동반 하락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은 현재 경기상황과 전망을 모두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58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7월 광주·전남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제조업 7월 업황 BSI와 8월 업황전망 BSI는 각각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73과 74로 전달보다 모두 5포인트 하락했다.

7월 생산BSI(88)는 6월과 같고, 매출BSI(85)와 채산성BSI(83)는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하락했다.

8월 매출전망 BSI(89)와 채산성전망BSI(90)는 각각 4포인트와 3포인트 상승했고, 생산전망BSI(88)는 6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7월 업황BSI는 73, 8월 업황전망BSI는 76으로 각각 전달보다 2포인트와 4포인트 내려갔다.

7월 매출BSI(75)와 채산성BSI(83), 인력사정BSI(88) 등은 전달보다 각각 14포인트, 3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8월 매출전망BSI(81)

와 채산성전망BSI(83), 인력사정전망BSI(87) 등은 전달보다 각각 10포인트, 6포인트,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1.0%)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12.4%), 불확실한 경제상황(12.3%),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1.6%), 수출 부진(11.6%), 경쟁 심화(5.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B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이은미기자 emlee@



삼성전자 스마트TV 프리미엄 마케팅

삼성전자가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영국 런던에 프리미엄 매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삼성전자는 영국 ‘해로즈’ 백화점에 가전 브랜드 최대 크기의 ‘숍인숍(Shop in Shop)’ 매장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숍인숍 매장은 스마트 TV 등 삼성전자 제품의 융합 기능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합뉴스

캠코 광주전남 부동산 18건 매각·임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오병균)는 30~31일 이틀간 단독주택·대지·전·임야 등 총 18건, 35억원 규모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및 임대(임대)한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

에 있어 근저당·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에는 최초 매각·대부 예정보다 저렴한 물건 10건이 포함돼 있다. 주요 물건은 여수시 울촌면 1억7317만원대 단독주택과 무안군 삼향읍 4231만원대 전 등

이다.

입찰 참가자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낙찰은 최고가부터 선정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문의는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박정욱기자 jwpark@

구직자 희망연봉 2756만원

근무지는 46% 서울 선호

취업포털 사람인은 구직자 10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 연봉은 평균 2756만원으로 집계됐다.

목표로 삼은 기업 형태로는 29.4%가 ‘대기업’을 꼽았으며 ‘중견기업’(28.2%), ‘공기업’(17.5%), ‘중소기업’(17%), ‘외국기업’(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직장을 원한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경기’(18.2%), ‘부산·울산·경남’(12.1%), ‘대전·충남·충북’(9.2%), ‘대구·경북’(7.6%)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희망 직종은 ‘정보통신·IT(정보기술)’(13.7%), ‘유통·무역’(10.7%), ‘전기·전자’(9.4%), ‘제조’(7.2%) 등이었다. /연합뉴스

상반기 신설법인 3만8102개 작년비 17% 늘어 역대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3만8102개로 2000년 조사 시작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3만2424개)와 비교하면 17.5% 증가한 것으로, 사업주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23.3%), 50대(23.2%), 60세 이상(22.0%) 등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청년층의 창업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후 자영업 진출이 활발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03개로 20.4% 늘었으며 서비스업(3655개)과 건설업(318개)도 각각 18.0%, 8.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32.3%), 울산(28.2%), 대구(26.4%) 등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이 설립한 법인 수도 1607개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22.7% 늘었다. 초기자본금 1억 이상의 법인은 10.1% 증가에 그쳤지만 1억 미만 법인은 18.9% 늘어나 영세 창업도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43.79 (+14.63)
코스닥지수	465.46 (+0.74)
금리 (국고채 3년)	2.85% (-0.01)
원·달러 환율	1,137.60원 (-0.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현대건설 4년 연속 시공능력 1위

현대건설이 4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올렸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만54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시공능력을 평가한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능력평가액 11조7108억원으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고 30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공사 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통합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7월 말 실시한다.

현대건설에 이어 2위는 삼성물산

으로 10조1002억원, 3위는 대우건설로 9조2224억원이었다.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경영평가 점수가 좋지 않아 지난해 6위로 떨어졌으나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올해 3위로 세 계단이나 뛰어올랐다. 4위는 GS건설(8조9002억원)이 차지했다. 지난해 10위였던 두산건설은 올해 12위로 처졌다. /연합뉴스

광주에서 강원도 가는 빠르고 편안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광주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1시간 20분만에 도착! 양양에서 강릉, 속초까지 차량으로 30분!

광주공항에서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주 3회 왕복운항 합니다.

신규취항 이벤트 군장병 20% 할인

항공사: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KOREA EXPRESS AIR (최초 에어리시 운영, 첫운항 후후로만 인연운항 중)

문의처: 예약전화: 1661-2682, www.keair.co.kr · 공항안내: www.airport.co.kr/doc/yangyang

구분	운항요일	출발시간	소요시간
양양 ↔ 김해	목: 왕복 1회	양양: 10시 30분 김해: 18시	1시간 10분
	금: 왕복 2회	양양: 07시 50분/17시 10분 김해: 09시 30분/19시	
	토·일: 왕복 2회	양양: 09시/17시 10분 김해: 10시 50분/19시	
양양 ↔ 광주	금·토·일: 왕복 1회	양양: 13시 광주: 15시 10분	1시간 20분
양양 ↔ 김포	목요일: 김포발 일요일: 양양발	김포: 09시 양양: 09시	50분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업,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다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방수층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된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리터로 다시 틀어서 물배금이 원활하다. *상기 특허 등록 및 마지키 도공시 개발비용이 많고 고비용이 들 수 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차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온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리터로 새로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배금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로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방수처리된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순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물에서 말리고 돌아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풍이 밀리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월 남의도 연료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승용-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